



한라일보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서평 삼매경' 어느새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시나브로 오르는 기온으로 산과 바다에는 벌써부터 초여름 풍경이 한가득이다. 16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서평을 이용해 파도타기 연습에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난 14일 유네스코 공식문서·인증서 전달받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2022년까지 지위 유지 지질공원 관광활성화 연구 등 4가지 권고사항도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네스코의 공식 문서와 인증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유네스코의 제주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9월 이탈리아에서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회의가 열려 재인증 심의가 통과됐다. 뒤이어 이번 공식 문서를 통해 최종 승인됐음을 밝혔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재인증된 것이다. 지난 2014년 재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10개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주도는 유네스코 권고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지질공원 가시성 향상, 파트너십 확대 구축, 홍보활동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확대, 국제교류 강화 등을 추진하며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아울러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권고사항 4가지를 제시했다.

권고내용은 ▷제주도 지질공원과 지오브랜딩 사업 웹사이트와의 통합 ▷제주도 지질공원의 관광활성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와 연계한 시너지 관리방안 구축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참여 등이 골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제주에서 70여개국 1200여명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자연자원의 가치와 제주도 지질공원의 활동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민원처리통합' 메뉴를 상시 표출함으로써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가장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내용·월별 통계 등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고대로그기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창구 개선

상시 표출로 접근성도 높여

페이지내 15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창구가 다양해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7월까지 도청 홈페이지 내에 '민원처리통합' 메뉴를 신설해 기존 15개 개별 민원창구들 중 중앙부처와 연계되거나 중앙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창구를 신설되는 '민원처리통합' 메뉴로 우선 통합한다.

제주자치도는 민원에 대한 접근성과 응답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까지 도청 홈페이지 내에 산재된 '민원창구'들에 대해 중복된 부분은 일부 통합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 및 민원답변 만족도 평가 기능 추가 등 '온라인 민원창구'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민원창구는 현재 도청 홈페이지

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민원처리통합' 메뉴를 상시 표출함으로써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가장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내용·월별 통계 등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고대로그기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창구 개선

상시 표출로 접근성도 높여

페이지내 15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창구가 다양해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7월까지 도청 홈페이지 내에 '민원처리통합' 메뉴를 신설해 기존 15개 개별 민원창구들 중 중앙부처와 연계되거나 중앙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창구를 신설되는 '민원처리통합' 메뉴로 우선 통합한다.

제주자치도는 민원에 대한 접근성과 응답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까지 도청 홈페이지 내에 산재된 '민원창구'들에 대해 중복된 부분은 일부 통합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 및 민원답변 만족도 평가 기능 추가 등 '온라인 민원창구'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민원창구는 현재 도청 홈페이지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표류'

도의회 운영위 "2월 동의안 처리... 역할 다해" 제주도 "도의회 의견 공문 접수 받은 후 결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지지부진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30분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에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라며 "이제 집행부(제주도)가 이것을 바탕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행정시장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자치도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제주자치도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도의회는 올해 2월 2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통과 후 행정시장 권역 조정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도와의 첫 협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전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를 두고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책협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임시회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협의가 어려워졌다.

결국 제주도가 같은 달 22일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투표 관련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주민투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줄다리기가 싸움이 깊어지면서 추진 여부가 더욱 감감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접수받은 후 판단하겠다"며 "위원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한다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i@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유투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 수습기자 0명
- ▶ 경력기자 0명
- ▶ 사진기자(신입/경력) 0명
- ▶ 경력기획 인사·총무(신입) 0명
- ▶ 광고영업(신입) 0명

제출서류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stkim@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19년 5월 21일

문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1

* 재학생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졸업에 정지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게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家庭

Family Month

5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여행,

서귀포시가 함께합니다.

서귀포시

시민 모두가 즐거운 행복도시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여행을 떠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0일 현부가족의 날	5월 15일 스승의날	5월 20일 성년의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가정의날	5월 20일 세계인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5월에는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잇고 지냈던 한 마디를 꺼내보세요**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이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함께 응원합니다.